

“멀리 안가도 돼요”...광주·전남 첫 ‘코스트코’ 순천에 입점

선월지구에 2028년 하반기 개점 연간 1300만여 명 이상 유입 효과 전남·북·경남 상권 중심지로 도약 기업-소상공인 상생발전 방안 논의

순천 선월지구에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COSTCO)’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순천시 선월지구에 신규 입점을 위한 10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코리아는 선월지구에 2028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연면적 4만 6734㎡ 규모 매장을 조성한다.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형 매장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 유통체인이다.

코스트코 순천점은 지난 7월,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됐고, 코스트코 미국 본사에서 순천점 입점을 최종 승인했다.

순천에서는 앞서 코스트코 입점 계획이 지역상인 반발 등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역 여론이 틀어지면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시 유지에 성공했다.

코스트코 순천점이 문을 열면 전남도를 비롯, 광주와 경남, 제주 등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생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순천시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여주시 등 동부권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코스트코 매장은 20개지만, 수도권에 12개가 몰려있으며 호남에는 단 한곳도 없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시민들은 가장 가까운 매장이 있는 대전, 김해로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지만, 순천점이 문을 열게되면 광주·전남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입점이 한 차례 무산됐던 배경이기도한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힌다. 동부권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진 데다, 소비자들의 소비 양상이 온라인 쇼핑 등으로 변화한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지는 줄어들대로 줄어든 상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코스트코 입점에 따라 순천시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스트코와 협의해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지원 강화 대책도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수 코스트코리아 대표는 협약식에서 “순천에 진출하는 데 십수 년이 걸려 오늘에야 결실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단순한 유통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전남은 물론, 전북·경남권까지 아우르는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년 공감 '북구 청춘페스타' 30일 청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5 북구 청춘페스타'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아주 보통의 청년'이란 주제로 열렸다. /나명주기자mjna@

광주·전남 '결혼 스텝' 비용 전국 최고...식대도 수도권보다 높아

소비자원 조사, 전체비용 광주 1655만원·전라 1693만원 '상승세'

최근 3개월 동안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결혼서비스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결혼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명 '스텝'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계약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식대도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8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전체비용은 8월 기준 평균 2160만원으로 조사됐다.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료부터 스텝 패키지 등을 합산한 총 비용으로, 올 하반기 들어 6월 2074만원, 7월 2099만원, 8월 2160만원 등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결혼서비스 비용은 수도권이 2665만원, 비수도권은 1511만원으로 서울과 가까운 수록 비싼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강남)이 350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강남 외) 2588만원, 경기(1862만원), 인천(1860만원), 충청(1759만원) 등 순이었다.

광주와 전라(전남·북)지역 결혼서비스 전체비용은 각각 1655만원, 1693만원으로 전국 중위권을 기록했지만, 비수도권 평균 금액보다는 150만원 가량 비쌌다.

특히 결혼식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가 1인당 6만원 대로 올랐다. 결혼식 1인당 식대는 전국 평균 기준 지난해 5만원대 초반을 기록한 뒤 꾸준히 올라 올 6월 5만 8000원, 7월 5만 9000원에 이어 8월 6만원을 기록했다.

광주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보다도 결혼식 식대가 높았다. 지역별 식대는 서울(강남)이

2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강남 외) 1480만원, 광주(1206만원), 충청(1180만원), 경기(1160만원), 인천(1140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라지역 결혼식 식대는 98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20만원 저렴했다. 하객 1인당 식대로 보면 서울, 광주, 경기지역만 전국 평균(6만원)보다 높았다.

광주와 전라지역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계약의 대표 주자로 여겨졌다. '스텝' 패키지 가격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스텝 패키지 계약금액은 345만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부산(320만원), 전라(318만원) 순으로 비쌌다. 이는 전국 평균치보다도 25~5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업체 504개사를 조사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yang@kwangju.co.kr

기아, 임금 협상 타결...5년 연속 무분규

기본급 10만원 ↑·성과급 350%

기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최종 가결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임금 협상 타결로 미국발 관세 위기를 겪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광주 등도 한숨 돌리게 됐다.

이날 노조원 2만 5812명 중 2만 135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1만 5601명(73.1%), 반대 5710명(26.7%)으로 2025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조인식은 1일 열렸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25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7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안에는 기본급을 호봉승급분 포함 10만원 인상하고 경영성과급 350%와 생산·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10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기아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다만 올해는 노조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

기아 노사는 국내 오토랜드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사장 공개 모집

광주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사 임원(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응모 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험 또는 공기업 분야에 전문 지식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자 ▲확고한 개혁 의지와 비전을 제시해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 ▲

위 각 호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지원서 등 서류 접수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 까지며, 공사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접수할 수 없다. 제출 양식은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거나, 공사 총무팀(604-8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무등산 정상부 개방

9일 오전 9시~오후 4시 이용

광주시가 오는 9일 추석연휴 마지막 날 무등산 정상부를 시민에게 개방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협조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개방행사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내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 인양봉 상시 개방에 이어 정상부 경관을 보고 싶다는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개방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염원을 모은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 등을 둘러보고 군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구간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부대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외국인은 군사보안상 출입이 제한된다. 인양봉은 누구나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다.

광주시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에 질서 유도 요원을 배치하고, 119 구급차량과 헬기를 대기시킬 계획이다.

또 북구와 동구, 북부·동부경찰이 협조해 총장 사·원호사 주차장, 윤림중학교·중심사 입구 등 혼잡 구간의 불법 주차차를 통제한다. 시내버스 1187번과 1187-1번도 증편 운행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 주둔 이래 출입이 통제됐다.

2011년 첫 개방행사 이후 2023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열리며 48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2012년에는 4차례 개방해 회당 2만~4만 명이 방문했고, 지난해 10월 8일 개방 때에는 2만5000 명이 몰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
- 피고인 : 양 광성주 외 21명
- 위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불응할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9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용규, 김준영, 김은영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 이승환
-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송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돈 회수 가능함!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재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복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최고,
대지 848.5㎡ 건물 3,846㎡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과, 약국, 성형중)

현재 월 3천 1백, 수익률 7%
매 69억 9천, 인수가 17억

군산중심대로 롯데마트 앞.

주인적 010-3646-8700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동 경 266-1920 • 문 훈 266-1960
• 북 경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평 산 571-7658 • 오 치 266-7801
• 흥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경 673-69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936 • 백 운 651-1833
• 북 선 673-6936 • 송 하 675-6605
• 진 밀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 경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동 알 603-0311
• 화 경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